

경조비에 대한 의식 및 지출 변화*

- IMF경제위기 이후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The Change in Consciousness and Expenditure on Kyong-Jo after IMF Economic Crisis on Cheju Island*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혜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학원생 김미성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ye-Yeon Kim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d Student : Mi-Seo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hanged consciousness and expenditure on Kyong-Jo after IMF economic crisis and the some factors which have effects on the change. The expenditure on Kyong-Jo included donations and gifts associated with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personal questionnaire on Cheju Island. The sample consisted of 400 married adults whose age were between 20 to 65.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ome individual characteristics, household related variables, and Kyong-Jo related variables. The dependent variables included the change in consciousness and expenditure on Kyong-Jo. The data were analyzed by methods such as frequencies, means, Multiple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본 논문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spondents perceived that Kyong-Jo is fundamentally a good custom to help each other when some one is in the hard time. Their perception of the expenditure on Kyong-Jo has not been changed even since IMF economic crisis. 70%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re was little difference of the expenditure on Kyong-Jo before and after IMF economic crisis. This trend is in contrast to the perception and the expenditure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e other residences after IMF economic crisis. The factors which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respondent's consciousness of the expenditure on Kyong-Jo were occupation, whether owns a house or not,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assets. The change of household expenditure on Kyong-Jo was effected by the respondent's sex, occupation, household income, household assets, and social network.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respondents on Cheju Island more strongly hold the conservative perception to the expenditure on Kyong-Jo rather than the people in other residences.

주제어(Key Words): 경조비(kyong-jo), IMF 경제위기(IMF economic crisis), 의식(consciousness), 지출(expenditure)

I. 서론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적 영향으로 인하여 관혼상제(冠婚喪祭)가 중요시되어 왔고, 이러한 관혼상제는 부락단위로 유대를 강화시켜주었으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김진영, 1990). 특히 과거 농경사회는 사회이동이 적었고 빈곤이 재생산되는 사회였다. 이러한 가정의례(家庭儀禮)시의 상부상조 행위는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가정의례시 일을 거들어 준다든지, 긴요한 물품이 중심이 되었던 상부상조의 미덕은 현대사회의 경조비 문화로서 그 맥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조사 부조금은 상주나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었던 것인데 지금은 허례, 허식이나 체면의식과 관련하여 경조비의 성격이 왜곡되어 액수의 과다가 체면을 세우는 기준인 것으로 변질되면서(동아일보, 1999) 경조비 지출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경조사비 지출은 점차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경조사비의 비율이 높아 가계압박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중앙일보, 1998).

한 예로 1996년 도시근로자 가구는 매월 평균 약 39,000원, 연간 472,000원을 경조비로 지출(중앙일보,

1998)하였는데,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83%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1996년의 경조비 총지출 규모를 추정해 보면 도시지역은 약 4조2천억원이며, 농촌지역은 1조원으로 총 약5조2천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러한 배경에서 가계의 소득 감소와 관련하여 소비와 지출의 감소가 요구되었던 IMF 경제위기 시대에 경조비 지출은 가계의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1999)의 조사에 의하면 IMF이전과 비교하여 현재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비용이 교육비(48.1%), 자가용 유지비(34.6%), 경조사비(30.7%)의 순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조를 해야 하고 경조비 액수를 줄일 수 없는 현실과 체면 등으로 지출을 쉽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화산섬인 제주도는 도량이 척박하여 개개인이 받을 일구어 경작을 하는 밭농사 중심 사회였다. 그래서 제주도인들은 균분상속과 제주도만의 특유한 핵가족 제도 등 집단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이루어 살았다. 또한 환경적으로 한반도와 고립되어 있는 도서성(insularity)과 좁은 범위의 사회관계 유지를 특징으로 하는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김진영, 1996). 이러한 제주도만의 고유한 특징은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 여기고, 어려울 때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조사 부조에서 잘 나타난다. 제주도는 경조사 부조가 생활 중에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단위로 부조가 행해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남편과 부인 등 가족 구성원 각자가 각기 부조를 행하는 겹부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부담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제주도 특유의 경조사비 지출 문화는 과거 생존이 어려웠던 시기에 서로 돕기 위해 행해졌던 미덕으로 그 필요성은 크지만 점차 과시 소비적 행동패턴과 결부되면서 개인적, 가정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IMF이후 금리와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경조비 지출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조사비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민속의 차원에서 농촌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각기 다른 맥락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박명숙·류정순, 1998), 대부분은 정부기관에서 건전 가정의례 분위기를 위한 보고서나 실태분석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가정학에서는 주로 전체 소비 지출에 관한 연구 중의 일부분으로 언급되었으며 (강이주, 1998; 양세정, 1991), 이것 또한 대부분이 도시 가계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따라서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의식이나 지출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으며 특히 지역적 배경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실증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에서 IMF경제위기 이후와 이전의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비교하고 관련변수들을 분석함으로써 가계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연구 및 정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경조비의 개념 및 범위

우리 나라의 미풍양속 중 경조비 지출은 상부상조의 바탕위에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생활문화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나타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의 모습으로 그 기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오늘날까지 서로를 돕는 미덕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것 중의 하나가 혼례(婚禮)나 상례(喪禮)시에 주고받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의 형태로 남아있는 경조비(慶弔費)이다.

이러한 경조비는 한국사회에서 서구화된 사고방식과 함께 전통성을 유지하려는 가치, 태도, 의식구조의 혼돈에 의해 나타난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정신지향적 가치체계로서 상호부조적인 목적을 가진 계, 품앗이의 형태가 근대의 물질지향이라는 가치체계와 병존되어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의 경조비의 지출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로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유일한 지출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소비생활양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김영숙, 1996).

한편 경조사의 범위는 지역과 생활풍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서 연구자에 따라서 그 종류나 범위가 다르게 정의되어 졌다(표 1참조).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 및 지침(1998)에 의하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서 그 정의를 “가정의례”라 함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혼례·상례·제례·회갑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경조비를 축의금, 조의금, 기타경조비로 규정하고, 경조사를 결혼, 생일, 백일, 돌, 환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김영숙(1996)의 연구에 의하면 경

<표 1> 경조사 분류

연구자(년도)	조사지역	경조사 분류
통계청(1998)	전국	결혼, 상례, 백일, 돌, 환갑, 생일
김영숙(1996)	부산광역시	혼례, 상례, 백일, 돌, 회갑, 고회, 팔순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결혼식, 장례식, 백일잔치, 돌잔치, 회갑잔치, 칠순잔치
김진영(1990)	제주도	혼례식, 장례식, 탈상

조사를 혼례와 상례, 백일, 돌, 회갑, 고회, 팔순으로 구분하고 있고, 김진영(1990)의 연구에서는 경조사를 혼례식, 장례식, 탈상으로 구분하여 경조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4)의 자료에서는 경조사에 결혼식, 회갑잔치, 칠순잔치, 백일잔치, 돌잔치, 장례식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경조비의 범위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어졌으나 대부분 경조비의 범위를 혼례, 상례, 백일, 돌, 회갑, 칠순, 팔순잔치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타지역과는 다른 경조사 문화가 발달하여 김진영(1990)의 연구에서 혼례식, 장례식과 더불어 탈상, 즉 소기까지 경조사로 분류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생활에서 경조사의 범위가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지역의 경우 혼례 피로연은 보통 1일에 한정되어 있으며 장제일은 3일장이 지배적이다. 소상에 있어서도 100일 탈상이 보편적이며 소기는 제사로 봉제되는 것과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혼례 날짜가 닷새가 일반적이고(제주도청, 1994), 평균 44일의 상례기간을 가지며(김진영, 1994), 소기의 종일봉제 등 경조사 기간이 길고 범위가 넓다. 또한 타지역에서 혼례식 예식장에서 부조금을 받기 위한 접수처가 있고 초상시에는 단상에만 상부조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주에서는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당사자나 관련 친척이 직접 받고 있다. 또한 소기시에도 부조금을 상부조로 받는 경우보다는 문상객들로부터 관련 당사자나 친척이 직접 받는 경우가 7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진영, 1994).

한편 제주도는 타지역에서 볼 수 없는 겹부조의 문화가 존재한다. 타지역에서는 흔히 경조사를 당한 사람에게 관련된 개인이나 가계를 대표하는 사람(보통 가장)의 이름으로 부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경조사를 당한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은 소속된 집단이나 관계 모두에서 부조를 위한 경조비 지출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한 개인은 친구관계, 동창회구성원, 친척 등의 관계에서 모두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 또한 경조사를 당한 사람과 한 가계내의 남편, 부인, 아들, 딸이 모두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들 모두 각각 경조

사비를 지출하게 되는 겹부조를 행하게 된다. 이것은 제주도가 예로부터 생존을 위해 가족이 나가게 단위가 아니라 각 개인이 개별적 경제 단위를 이루는 전통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제주도 경조사 범위는 타지역에 비해 더 넓고 생활속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조사를 중심으로 경조사의 범위를 결혼식, 장례식, 백일/돌잔치, 회갑/칠순잔치, 기타(개업, 병문안 등 행사)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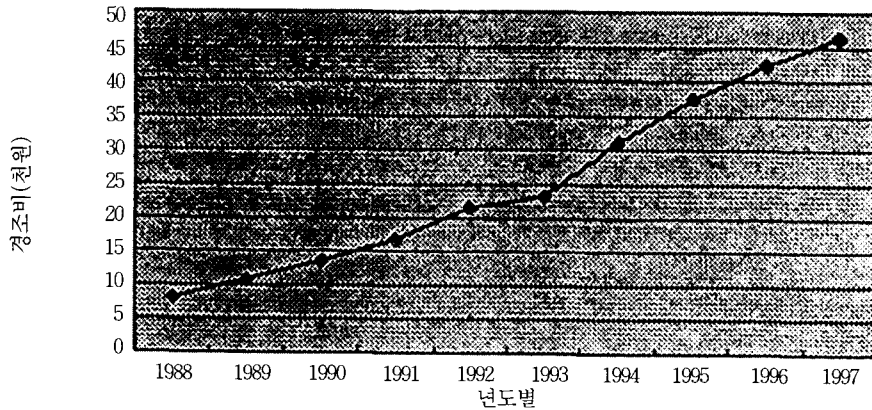
2.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의식과 실태에 관한 고찰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경조비 지출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의 도시가계 연보를 살펴보면 경조비는 기타소비지출 중 잡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회비 및 교제비, 관혼상제비가 이에 속한다. 도시가계연보를 통해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조비 지출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997년 경조비는 가계지출의 4.2%를 차지했고 1996년 대비 1997년에는 1.3% 증가하였다. 우리 나라 전기구의 가구당 월평균 경조비에 대한 가계지출은 <그림 1>과 같다.

박명숙·류정순(1998)은 1982년부터 1996년까지 월평균 경조비 지출변화를 살펴보았다. 1982년 7,578원, 1984년 9,642원, 1985년부터 평균경조비가 10,000원을 넘어섰고, 1990년 19,423원,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20,000원을 1994년~1995년은 30,000원대를 1996년에는 42,404원으로 월평균 경조비가 40,000원대로 증가하여 1982년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 동안 월평균 경조비의 지출은 약 5.6배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경조비 증가율이 총소비 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4)는 우리 나라 6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경조비 지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결혼식 참석시 지출하는 1회당 평균 경조비는 30,209원이었고, 장례식인 경우 35,278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조사에 의하면 1996



<그림 1> 월평균 경조비 지출현황
출처: 통계청(1998). 도시가계연보, 서울: 통계청.

년 도시근로자가구는 매월 평균 약 39,300원, 연간 472,000원을 경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8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김영숙(1996)은 경조비 지출을 사회관계망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는데 가족, 친척관계는 63,099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중 2.73%를 차지하며, 전체 경조비 중 44.5%를 차지하고, 직장관계 경조비 지출은 25,383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1.1%, 전체 경조비 지출의 17.91%로 나타났다. 또한 동창회 관계는 15,289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0.66%를, 전체 경조비 지출에 대한 비율로는 10.78%로 나타났다. 계·모임관계 지출은 21,591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0.93%이며, 전체 경조비 지출 중 15.23%로 나타났고, 이웃관계 지출은 12,277원을 지출하여 전체 소비지출의 0.53%, 경조비 지출 중 8.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친족관계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직장관계 지출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부인회(1993)가 서울·신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경조사비지출에 관한 조사에서 경조사비 규모는 일가친척의 경우 10만원 이상이 50%로 가장 많았고 친구·친지의 경우는 3만~5만원이 87%, 이웃이나 직장동료에게는 80%이상 2만~3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부산광역시 가계를 대상으로 한 경조비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경조비는 전체 소비지출의 10.6%로 매우 높게 나타나 1994년 도시가계 조사자료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회관계망별로 경조비 지출을 살펴보면 가족, 친척관계, 직장관계, 계나 모임관계, 동창회(친구)관계, 이웃관계의 순으로 지출되었다. 사회적 관계망이 경조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이 사회적 지원이 형성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친밀감을 통해 구체화된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도움을 지속적으로 상호교류하는 유대관계(서병숙, 1993)이며 가족, 친척관계가 다른 관계에 비해 결속력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조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김영숙, 1996).

199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관계별 경조사비 지출을 살펴보면 가깝게 지내는 친척이 평균 93,046원으로 가장 높고, 그냥 알고 지내는 상사·동료·후배의 경우는 26,971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경조사비는 친척, 친지, 직장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친지의 경우 그냥 알고 지내는 선후배 및 친구(29,374원)에 비해 부모·형제의 친구(34,151원)에게, 직장의 경우는 그냥 알고 지내는 상사·동료·후배(26,971원)에 비해 업무상 관계가 있는 외부인사(30,452원)에게 더 많은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타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제주도의 연구로는 유일한 김진영(1990)의 조사에서 각 지역별·성별 평균 경조사 부조금액을 살펴보면, 결혼식의 경우 제주도 남자인 경우 23,300원, 여자인 경우 43,200원을 부조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부조금액은 남자인 경우 남제주군에서 15,800원, 여자인 경우 북제주군에서 18,000원으로 나타났다. 장례식의 경우 서귀포시가 34,000원으로 가장 높게, 남제주군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여자인 경우 제주시가 최대 19,400원을, 남제주군이 11,000원으로 최소금액을 나타냈다.

한편, IMF체제로 소비생활 변화의 일부로 경조사비에 대한 몇몇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8)이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IMF구제금융체제 전후의 소비생활 행태 및 의식을 설문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조비는 축의금이 평균 38,400원에서 29,700원으로 22.7%, 조의금이 39,400원에서 30,700원으로 22.1% 줄었다.

생활경제국 소비전환화팀(1998)에 의하면 IMF 이후 생활비 절약 인식에 대한 변화는 표본수(명) 970명중 11.2%가 경조비를 절약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도시별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조비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의 절약정도가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IMF 이후 소득감소로 인해 생활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합리적 소비추구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경조금 지출은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여주었으며 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경조비 지출비율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소득수준별 경조비 지출을 살펴보면 고소득자가 경조금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득규모가 적을수록 오히려 소득에 대한 경조금 지출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경조사비의 비율이 높아 가계압박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8)의 소비행태변화 조사에

서는 경조사비 줄이기가 IMF체제 이전 실천이 9.5%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IMF체제 이후 실천율이 37.2%로 높아졌다. 이는 IMF체제 이전 실천이 극히 낮게 나타났지만, 이 역시 생활비 줄이기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IMF체제 이후 소비거품이 빠지는 방향으로 소비 건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실천율이 매우 높아 점진적으로 보다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IMF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경조사비를 이미 줄였거나 줄일 계획이 있으며 경조사비로 한 달 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5만원 미만이 52.9%, 10만원 미만이 37.9%, 15만원 미만이 6.3%로 보고(동아일보, 1998)되고 있으므로 향후 소득의 감소가 예상되는 몇 년 동안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조비 지출에 관한 것이므로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결혼한 성인남녀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1999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1999년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지 7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424부였으나 부실응답 및 무소득자 등 적합하지 않은 조사대상을 제외한 400명에 관한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모델, 측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IMF 이전과 이후의 경조비지출에 대한 의식과 지출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의식변화 = f(개인 및 가계 관련변수, 경조관련변수)

경조비 지출액의 변화=f(개인 및 가계관련변수, 경조관련변수)

종속변수인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의식변화와 지출액의 변화는 IMF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의식과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파악하였다.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은 김영숙(1993)의 연구를 근거로 5점 likert형식으로 된 경조비 지출의 전통과 필요성에 관한 9문항을 통해 파악하였는데, 문항의 내용에 따라 점수를 역으로 주고 합산하였다. 이때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경조비 지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조비 지출에 대한 실태는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4)의 연구

를 참고로 하여 참여빈도, 부조형태를 살펴보았으며, 1회당 평균부조금액, 개인 및 가계의 월평균 부조금액에 관한 문항은 현금부조액을 조사하였다. 이때 겹부조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및 가계의 부조금액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생활경제국소비건전화팀(1998)의 연구를 근거로 IMF 이후 실제 경조비 지출감소 여부를 질문하였다.

한편 개인 및 가계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첫째자녀의 나이 등을 조사하였고, 경조비 지출은 가계의 경제적 상황과도 관련이 많으므로 주택소유여부, 가계소득, 가계지출, 가계자산 유무 및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표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IMF경제위기이후 경조비에 대한 의식변화 IMF경제위기이후 경조비 지출감소 개인 경조비b 지출감소(월평균) 가계 경조비b 지출감소(월평균)	IMF이후 경조비에 대한 의식-IMF이전 소비에 대한 의식(1-5점)a IMF이후 월평균 개인 경조비 지출감소 1=없음 0=있음 IMF이후 월평균 가계 경조비 지출감소 1=없음 0=있음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성 별 연 령(세) 교육수준 직업종류 주부 전문·관리직 사무, 행정, 기술직 자영업 공용직,판매직, 서비스직 농·축·수산업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소유여부 가계소득 가계지출 가계자산 18세이상 첫 자녀 유무	1=남성 0=여성 세 교육수준 1=해당 0=비해당 1=해당 0=비해당 1=해당 0=비해당 1=해당 0=비해당 1=해당 0=비해당 1=해당 0=비해당 1=자가 0=기타(전세, 월세) 1=있음 0=없음 IMF이후 및 이전 월평균 가계소득(천원) IMF이후 및 이전 월평균 가계지출(천원) 부동산 + 주택시세(천원) 1=있음 0=없음
경조사 관련 변수 사회관계망 크기 과거 경조사 경험	경조사시 참여해야할 가족, 친척, 동료, 이웃의 수(명) 최근 3년내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 경험유무(1=있음 0=없음)

a: 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b: 결혼식, 장례식, 백일/돌잔치, 집들이, 회갑/칠순잔치, 기타(개업, 병문안 등 행사)

또한 경조비 지출은 경조사 참여나 경조사의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관계망과 가족이나 친척 등의 경조사 경험 등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2>와 같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PC SAS program(Ver.6.04)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 및 지출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통해 분석되었다. IMF이전과 이후의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 및 지출 감소여부는 Paired T-test를 통해 그 차이를 검증하였고 각 변화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 때 분석에 앞서 .50의 수준에서 변수들의 적률상관관계를 조사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파악한 결과 VIF 값이 .10미만이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1.5%, 여성이 58.5%로 여성이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범 주	형 변 수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166	41.5
	여	234	58.5
교육수준	중졸이하	57	14.3
	고졸	173	43.2
	고졸이상	170	42.5
직 업	주부	110	27.5
	전문·관리직	54	13.5
	사무, 행정, 기술직	65	16.3
	자영업	56	14.0
	고용직, 판매직, 서비스직	50	12.4
	농·축·수산직	65	16.3
과거 경조사 경험	있음	274	68.5
	없음	126	31.5
주택소유여부	자가	241	60.2
	기타	159	39.8
부동산소유여부	있음	141	35.3
	없음	259	64.8
18세 이상 첫자녀	있음	138	34.5
	없음	262	65.5
	연속형변수	평균	표준편차
	연 령	39.00(세)	8.73
가계소득	IMF 이후	166.69(만원)	89.99
	IMF 이전	194.77(만원)	99.65
가계지출	IMF 이후	118.64(만원)	66.04
	IMF 이전	130.33(만원)	65.41
	가계자산	10363.18(만원)	14605.23
	사회관계망 크기	96.70(명)	95.39

약간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졸과 고졸이상의 약 40%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39세였다. 직업은 주부를 포함한 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지만 직업분포는 비슷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절반이상인 약 60%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계소득은 IMF현재 평균 약 1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IMF이전에 비해 평균 20만원 정도 적어진 것이다. 가계지출은 IMF이후 현재 평균 약 120만원으로 IMF이전에 비해 평균 약 10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는 약 35%정도였고, 이러한 부동산과 주택시세를 포함한 가계자산은 약 1억원이었는데, 가계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가 경조사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응답한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평균 약 100명이었으나 개인간 편차도 약 100명 정도로 매우 컸다. 과거 경조사 경험을 가졌던 경우가 약 70%여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2.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일반적 의식을 IMF 이전과 이후로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의식은 IMF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조사대상자들은 경조비란 큰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따로 부조하는 제주도 고유의 겹부조관행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이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 더 강해졌다. 또한 경조비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지출

<표 4>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

문항(IMF 이전, 이후)	IMF 이후		IMF 이전		변 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큰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것은 우리 고유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한다.	4.32	0.92	4.31	0.91	0.00	0.53	0.09
어려울때일수록 더욱 돕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조를 하고 있다.	3.63	1.22	3.67	1.22	-0.04	0.72	-1.10
경조비를 주고 받는 것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좋은 습관이다.	3.15	1.27	3.28	1.24	-0.13	0.69	-3.84***
경조비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졌다.	3.15	1.35	2.98	1.30	0.16	0.82	3.96***
경조비를 주고받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을 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3.26	1.34	3.08	1.31	0.78	0.42	37.07***
남편과 아내가 따로 부조하는 행위(겹부조)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4.60	0.84	4.27	1.10	0.34	0.96	7.05***
경조비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한다.	2.94	1.15	3.06	1.18	-0.11	0.71	-3.11***
제도적으로라도 경조사비를 줄여야 한다.	3.98	1.11	3.83	1.15	0.16	0.91	2.37***
결혼, 상례 등 관혼상제 이외의경조사에 대한 부조는 없어져야 한다.	3.75	1.32	3.65	1.31	0.11	0.91	2.37***
전 체	2.81	0.62	2.95	0.64	-0.14	0.35	-7.67***

*p<.05 **p<.01 ***p<.001

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약간 부정적이었으며, 경조비를 축소시키거나 제도적으로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조비 지출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다는 의미에서 시작했지만 그 의미가 왜곡되어 역기능이 나타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상부상조의 의미를 제외하고 경제적 위기 이후 경조비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이 되었으며 경조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데에서 원인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3. 경조비 지출 실태

1) 경조사 참여빈도 및 부조형태

조사대상자의 경조사에 대한 참여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한 달 평균 3회 정도 경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경조사는 결혼식으로 평균 약 2회 정도였다. 그 다음은 평균 약 1회 정도의 장례식이었고, 그밖의 경조사는 1회 미만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경조사 참여빈도는 각 경조사 영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전체적

<표 5> 경조사 참여빈도(월평균) (단위: 회)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결 혼 식	2.10	1.72
장 례 식	1.14	1.31
백일/돌잔치	0.61	0.93
집 들 이	0.61	0.77
회갑/칠순잔치	0.23	0.46
기타(개업, 병문안 등 행사)	0.74	0.94
전 체	5.42	3.54

으로는 개인 간 한 달 평균 약 4회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경조사에 대한 부조형태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경조사에 대한 부조형태는 IMF 경제위기와 관계없이 현금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식과 장례식은 다른 경조사에 비해 현금의 부조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백일, 돌잔치, 집들이 등 그밖의 경조사에는 선물이 약 30% 정도였는데, 이는 선물이 현금과 더불어 많이 행해지는 부조형태임을 보여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 물건을 도와주거나 축전, 전보를 치는 것은 현금이나 선물에 비해 매우 드문 부조형태

<표 6> 경조사 부조형태

(단위: 빈도, %)

경조사종류	부조형태	현금	선물	일·물건을 도와줌	축전/전보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결 혼 식	IMF이후	391(97.8)	5(1.3)	3(0.8)	1(0.3)
	IMF이전	391(98.0)	5(1.3)	3(0.8)	.
장 례 식	IMF이후	390(98.2)	4(1.0)	3(0.8)	.
	IMF이전	385(97.2)	8(2.0)	3(0.8)	.
백일/돌잔치	IMF이후	237(61.8)	134(34.9)	12(3)	1(0.3)
	IMF이전	259(67.0)	117(30.3)	8(2.0)	3(0.7)
집 들 이	IMF이후	251(65.0)	116(30.1)	19(4.9)	.
	IMF이전	282(71.9)	97(24.7)	12(3.1)	1(0.3)
회갑/칠순잔치	IMF이후	248(68.7)	88(24.4)	22(6.1)	3(0.8)
	IMF이전	266(72.5)	81(22.1)	18(4.9)	2(0.5)
기타(개업, 병문안 등 행사)	IMF이후	248(64.4)	128(33.2)	5(1.3)	4(1.0)
	IMF이전	266(68.7)	109(28.2)	9(2.3)	3(0.8)

였다. 이러한 부조형태는 경제위기와 관계없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였다.

2) 경조사에 대한 현금부조액

일반적으로 경조사에 대한 부조형태는 현금이므로 경조사에 대한 평균 현금부조액과 한달 평균 개인 및 가계의 지출정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IMF 이후 1회당 평균부조금액은 약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이며, 한달 평균개인은 7만원, 가계는 약 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나타난 가계의 평균 부조액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가계의 평균 가계지출의 약 9%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전부가 경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 부분 경조사가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부조금액은 조사대상자나 시기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절대적 비교는 어렵지만 제주도지역에 대한 김진영(1990)의 선행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줄어든 금액이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한솔PCS가 공동 조사한 결과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3) IMF 경제위기 이후 경조비 지출 감소여부

IMF 경제위기 이후 부조금액의 정도에 감소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경조사에 있어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감소가 없었다는 응답이 일반적이다. 경조사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약 25% 정도만이 지출정도를 줄였다고 보

<표 7> 경조사 현금부조 (단위: 천원)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결 혼 식	23.63	8.30
장 례 식	22.88	8.77
백일/돌잔치	23.46	10.67
집 들 이	21.13	9.11
회갑/칠순잔치	25.24	15.10
기타(개업, 병문안 등 행사)	19.88	11.33
개 인(월평균)	68.87	37.87
가 계(월평균)	106.73	58.30

<표 8> IMF이전과 이후 경조비지출 감소여부

구 분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감소한 경우
	빈도(%)	빈도(%)
결 혼 식	288(72.0)	109(28.0)
장 례 식	303(75.7)	94(24.3)
백일/돌잔치	320(80.0)	80(20.0)
집 들 이	313(78.2)	87(21.8)
회갑/칠순잔치	331(82.8)	69(17.2)
기타(개업, 병문안 등 행사)	332(83.0)	68(16.6)

고하고 있으며 한달 평균 지출을 볼 때 개인 및 가계의 약 30%만이 감소했다는 응답을 하였다. IMF 이후 감소한 경우 표준편차도 약 2만원 내외로 나타나 경조사의 종류나 사회적 관계 그리고 경조사에 참여하는 개인 및 가계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출감소가 없었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인 결과는 타지역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조사들이(생활경제국 소비건전화팀, 1998;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경조비 지출을 줄이려고 계획하거나 실제로 줄이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타지역의 경우 경조비가 경제적 위기에 따라 그 지출범위와 정도가 탄력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치소비의 성격을 갖는 반면 제주도에서의 경조비 지출은 경제적 상태에 따라 변화되기 어려운 필수소비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아직 살아있고 그 지리적 특성상 밀착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제주도 사회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4. 경조비에 대한 인식 및 지출변화에 미치는 제 변수들의 영향력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치는 제변수들의 영향력은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한편 경조비 지출감소여부는 월평균 개인지출 변화여부 및 월평균 가계지출 변화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있는

데,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수는 상관관계값을 기준으로 개인 및 가계 관련변수와 경조사 관련변수로 구분하여 선택하였다.

1)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의식변화에 미치는 제 변수들의 영향력

IMF 전후를 비교하여 경조비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설명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에 따르면 경조비에 대한 의식변화는 조사대상자의 직업종류, 주택소유여부, 가계소득 및 가계자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의식변화에 미치는 제 변수들의 영향력 (단위: 천원)

독립변수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성별(여성)	-0.009	0.079
연령	-0.007	0.006
교육수준	-0.005	0.016
직업종류(주부)		
전문·관리직	0.254**	0.133
사무, 행정, 기술직	0.009	0.116
자영업	0.101	0.104
고용직, 판매직, 서비스직	-0.061	0.114
농·축·수산업	0.135	0.110
주택소유여부(기타)	0.247***	0.080
가계소득	0.001***	0.000
가계자산	-0.000***	0.000
18세이상 첫 자녀 존재유무(없음)	-0.044	0.800
경조사관련 변수		
사회관계망 크기	-0.000	0.000
과거 경조사를 치른 경험유무(없음)	-0.076	0.068
상수	0.003	0.320
F값	1.532*	
Adjusted R ²	0.127	

*P< .10 **P< .05 ***P< .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가 전문·관리직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IMF전후를 비교했을 때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커졌다. 반면 가계자산이 많을수록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의식변화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이나 경조사 관련변수보다는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상태가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계자산과 같은 저량의 자산이 충분할 경우 경조비에 대한 부담을 적게 느낌으로써 의식의 변화를 적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개인 및 가계의 경조비 지출감소여부에 미치는 제 변수들의 영향력

IMF 전후를 비교하여 월평균 개인 및 가계의 경조비 지출에 감소가 있는지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개인의 경조비 지출감소 모델은 유의하였으며 예측력은 73.3%였다. 또한 가계의 경조비 지출감소 모델 역시 유의하였으며 예측력은 73.0%였다.

개인의 경조비 지출감소 여부는 조사대상자의 연령, 직업종류, 주택소유여부, 가계소득, 가계자산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가 남성이고 가계자산이 많을수록 개인의 월평균 경조비 지출은 변화가 없었다. 반면 조사대상자가 자영업을 갖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개인의 월평균 경조비 지출에는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월평균 경조비 지출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개인 및 가계의 경제적 상태가 유의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한편 가계의 월평균 경조비 지출 변화여부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직업종류, 가계소득, 가계자산, 사회관계망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남성일 경우 또한 가계자산이 많을수록 가계의 월평균 경조비 지출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남성집단이나 가계자산에 여유가 있을

〈표 10〉 개인 및 가계의 경조비 지출 변화유무에 미치는 재변수들의 영향력 (단위: 빈도, %)

독립변수	개인의 경조비 지출변화유무		가계의 경조비 지출변화유무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성별(여성)	1.170**	0.533	1.239***	0.515
연령	0.025	0.036	0.015	0.035
교육수준	-0.92	0.094	-0.103	0.094
직업종류(주부)				
전문·관리직	-0.645	0.849	0.121	0.812
사무, 행정, 기술직	-0.940	0.766	-1.006	0.759
자영업	-1.454**	0.712	-1.154*	0.675
고용직, 판매직, 서비스직	-0.030	0.677	-0.091	0.670
농·축·수산업	-1.337**	0.731	-1.334**	0.715
주택소유여부(기타)	-0.956**	0.492	-0.694	0.481
가계소득	-0.004*	0.002	-0.004*	0.002
가계자산	-0.000	0.000	0.000**	0.000
18세이상 첫 자녀 존재유무(없음)	-0.656	0.514	-0.708	0.503
경조사관련 변수				
사회관계망 크기	-0.004	0.003	-0.004*	0.003
과거 경조사를 치른 경험유무(없음)	0.573	0.003	0.465	0.424
상수	0.633	1.981	1.162	1.954
-2Log likelihood X^2	25.772*		25.619*	

*p<.10, ** p<.05, *** p<.01

때 의식과 달리 실제 경조비지출에 있어서는 보다 보수적인 행동이 표출되어 기존의 경조비의 범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그밖의 변수들은 월평균 가계의 경조비 지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가 자영업 혹은 농·축·수산직을 갖고 있을 때,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회관계망 크기가 클수록 월평균 경조비 지출에는 변화가 있었다. 소득수준별로 경조비 지출을 살펴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1998)에서 고소득자일수록 경조금을 많이 지출하고 저소득층을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경조사비의 비율이 높아 가계압박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직업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IMF의 경제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달랐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사회관계망 크기가 클수록 가계의 경조비 지출 부담이 증가하여 경조비 지출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가 경조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IMF이전과 INF 이후로 구분하여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의식과 실태를 비교,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개인변수 및 가계관련 변수와 경조사 관련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제주도 지역의 기혼 성인이었고 400명의 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것은 좋은 풍습이고 그러한 의미에서의 경조비 지출에 대해서는 IMF 전후를 통하여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조비 지출이 과도해지거나 부담이 되는 등의 역기능을 인식하고 있었고, 제주도 특유의 곁부조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조비 지출의 역기능으로 인해 경조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IMF 경제위기 이후 더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은 월평균 3회 정도 경조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부조형태는 IMF 위기와 관계없이 대부분 현금으로 부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식과 장례식에 있어서 현금은 가장 일반적인 부조형태였으며, 백일, 돌잔치, 회갑/칠순잔치, 기타(개업, 병문안 등 행사)에는 선물도 병행하였지만, 일, 물건 등을 도와주거나 축전, 전보를 이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 IMF 이후 1회당 평균 부조금액은 약 2만 5천원 정도였으며 개인은 월평균 7만원 가계로는 약 11만원으로 나타나 가계지출의 약 9% 정도를 경조사에 지출하며 상당 부분 곁조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MF 전후를 비교로 했을 때 경조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70% 정도의 조사대상자들은 경조비 지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월평균 개인 경조비 지출이나 가계지출에서도 나타나 타지역에서의 선행조사와 대조적이었다.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총 약 1만 5천원 내외였으며, 개인이나 가계의 변화는 평균 약 5만원 정도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넷째, IMF 전후의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업, 주택소유여부, 가계소득 및 가계자산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관리직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커졌다. 반면 가계자산이 많을수록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감소하였다.

다섯째, IMF 전후의 월평균 개인 경조비 지출변화는 연령, 직업종류, 주택소유여부, 가계소득, 가계자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월평균 가계의 경조비 지출은 성별, 직업종류, 가계소득, 가계자산, 사회관계망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제주인은 경조비 지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역기능과 부담으로 인해 줄어들거나 제도적으로 없애기를 바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IMF 이후 더욱 강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실제 경조비 지출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의식이 행동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주인은 경조사에 대부분 현금으로 부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금부조액은 가계지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조비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어 경조비 지출이 필수적 지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경조비 지출의 본래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경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무분별한 경조사 행위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식과 행동의 연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조사대상자가 전문·관리직을 갖고 있거나 주택을 갖고 있고 가계소득이 많은 경우 등 지식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 더 많아 이러한 집단이 경조비 지출의 역기능을 보다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소유 및 가계소득은 대체로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의식이나 실제 지출변화와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상태가 경조비 지출에 대해 유의한 영향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자산이 많을수록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의식변화가 감소하고 개인의 월평균 경조비 지출, 가계의 월평균 경조비 지출감소에 변화가 없었던 결과는 가계자산이 축적된 경우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경조비 지출을 위한 경제력을 갖고 있거나 경조비 지출에 변화를 보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경조비지출 연구에 있어서 개인이나 가계의 소득원천, 경제적 자원의 흐름(flow)과 저장(stock), 가계의 소득제공자의 수 등과 같은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정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IMF경제위기 이후 경조비 지출 감소여부에

있어서 성별은 일관적으로 예측력이 있는 변수였다. 조사대상자가 남성일 때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었고, 실제 지출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경제위기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경조사에 대해 생각하고 지출해야 하는 제주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의 종류에 따라 경조비 지출에 변화가 있었던 결과는 IMF 경제위기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경조사 관련 변수는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이나 개인의 지출감소여부와 큰 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가계의 경조비 지출감소여부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난 것은 제주의 겹부조 문화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제주지역의 고유한 경조비 문화와 관습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조비 지출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적 고려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일반적인 경조사 뿐 아니라 제주지역 경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더불어 제주지역의 경조비 지출에 대한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와 정책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IMF 경제위기가 경조비 지출에 대한 인식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경조비 지출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가 경조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제주도의 경조비문화나 실제 변화정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박인숙, 송요숙, 김경애(1999).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IMF관리체제 전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김경의(1993). 한국 도시가족의 혼인비용 지출현황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모란(1994).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

구-도시중간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숙(1996). 도시가계의 경조비 지출구조 분석. 소비자학연구, 7(2).
 김진영(1990). 제주도민의 경조사 소비실태 조사 보고서. 90산학협동 연구활동 보고서. 제주도: 제주도청.
 김진영(1994). 제주도 가정의례간소화 실천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용역과제 보고서. 제주도: 제주도청.
 김진영(1996). 가정의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간소화 운동. 96년도 세계화포럼 2. 제주: 세계화추진 제주협의회.
 노인행(1985). 현대사회에서 친족간 상부상조에 관한 의식구조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한주부클럽연합회(1998). IMF이후 주부들의 소비행태. 서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동아일보. 1998년 2월 13일자.
 박경숙(1993). 한국여성의 교육수준별 결혼유형의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명숙, 류정순(1998). 도시가계의 경조비 지출 변화 추이와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7).
 박상희(1984). 전남지방의 결혼관행에 대한 의식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혜인, 조은숙(1998). IMF경제위기 이후 혼례비용의 계층별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북제주군(1994). 건전한 우리가정 풍요로운 우리사회. 제주도: 북제주구청.
 생활경제국 소비건강화팀(1998). IMF전후 소비생활변화 비교. 서울: 생활경제국.
 세계화추진협의회(1996). 세계화시대 제주인의 의식. 이대로 좋은가-관·혼·상·제례를 중심으로-. 서울: 세계화추진협의회.
 이영미(1981). 우리나라 현행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연구-실천의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윤금(1998). 도시가계의 가정의례비 지출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9).

- 이행숙(1982).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의식과 혼비지출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강은주(1998). 경제성장 발달에 따른 혼례비용의 변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4). 경조비 실태조사. 서울: 저축추진중앙위원회.
-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 결혼비용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서울: 저축추진중앙위원회.
- 제주도(1996a). 건전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 제주도: 제주도청.
- 제주도(1996b).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 및 지침. 제주도: 제주도청.
- 최경숙(1995). 결혼의례절차와 물질적 재화교환의 관행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8a). 도시가계연보. 서울: 통계청.
- 통계청(1999b). 1998년 4/4분기 및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수동향. 서울: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3). 가정의례에 관한 의식행태조사 결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a). 가정의례의 경제적 비용 분석. 정책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b). 가정의례 및 음식문화 정착방안. 정책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방안.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소비자보호원(1998a). IMF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자의 역할.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소비자보호원(1998b). IMF체제 전후의 소비자의식 및 행태비교.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 홍춘미(1970). 가정의례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nks, S. K. (1979). Gift-giving: A review and interactive paradig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319-324.
- Belk, R. W. (1982). Gift giving involvement on gift select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408-411.
- Burgoyone, C. B., & Routh, D. A. (1989). Looking a gift-horse in the mouth: When and why money is unacceptable as gift. In Dolny, K. (Ed.), *14th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Economic Psychology* (pp. 24-27). Poland.
- Caplow, T. (1982). Christmas gifts and kin networks. *Journal of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383-392.
- Friedman, M. (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ode, W. J. (1985). Industrialization and family structure. In Norman, W. B., & Ezra, F. V. (Eds.), *A modern introduction to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115.
- Lee, G. R. (1979).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the families. In Burr, W. R., Nye, F. I., & Reiss, I. L.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New York: The Free Press.
- Maddalla, G. S. (1983). *Limited dependa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kin, R. J. (1974). *Consumer behavior: A cognitive orienta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Milardo, R. M. (1988). Family and social networks: An overview of theory and methodology. In Milardo, R. M. (Ed.), *Family and social networks*. Beverly Hill: SAGE Publication.
- Prais, S. J., & Houthankker, H. S. (1971). *The analysis of family budge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stmarck, E. A. (1981). 인류혼인사. 서울: 박영사.
- Wolfenbarger, M. F. (1990). Motivations and symbolism in gift giving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7, 699-706.